

## 전자서명

### ■ 전자서명(Electronic Signature)

-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**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** 이용하려고, 특정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**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**
  - \* 종이 문서에 자필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행위를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한 것  
⇒ 도장(개인키) 자체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, 도장을 찍은 흔적(전자서명)만 전달하는 것임

### ■ 전자서명의 주요 기능 및 특징

- 전자서명은 **일반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** (대한민국에서는 「전자서명법」에 의해 효력이 부여됨).
  - \* **1) 서명자 인증 (신분 증명)**
    - 서명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신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
    - 공개키 암호화 방식(PKI) 등 기술을 사용하여 서명자의 신원을 보장함
  - \* **2) 무결성 보장 (위변조 방지)**
    - 문서가 서명된 후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함
    - 문서의 고유한 해시값(Hash)을 생성하고 이를 서명자의 개인키로 암호화하여 서명에 포함시키는데, 문서 내용이 단 1비트라도 바뀌면 해시값도 완전히 달라져 서명이 무효가 됨
  - \* **3) 부인 방지**
    - 서명자가 나중에 "나는 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"라고 주장하는 것을 막아줌
    - 서명이 유효하다는 것은 개인키를 가진 당사자가 서명했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임

## ■ 전자서명과 디지털 서명의 관계

- 전자서명(Electronic Signature)이 디지털 서명(Digital Signature)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
  - 전자서명(Electronic Signature)
    - \* 포괄적인 개념으로, 디지털 문서에 동의나 승인을 나타내는 모든 전자적인 행위(예: 문서에 타이핑된 이름, 스캔된 서명 이미지, 클릭으로 동의)
  - 디지털 서명(Digital Signature)
    - \* 전자서명의 한 종류로, 공개키 암호화 기술(PKI)을 기반으로 하여 서명자 인증, 무결성, 부인 방지 등의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적인 방법

구분	전자서명 (Electronic Signature)	디지털 서명 (Digital Signature)
개념	넓은 의미의 전자적 동의 및 승인 행위 전체	공개키 암호화 기술(PKI)을 사용한 보안성이 강화된 특정 유형의 전자서명
범위	모든 형태의 전자적 서명 (상위 개념)	전자서명 중 기술적 표준을 따르는 형태 (하위 개념)
예시	마우스로 그린 서명 이미지, PDF에 타이핑된 이름, "동의" 버튼 클릭, 전화 PIN 입력 등	공인(또는 공동)인증서로 생성된 서명, 디지털 인증서를 기반으로 하는 서명
보안	비교적 낮거나 다양함 (변조 방지가 어려울 수 있음)	암호화를 통해 무결성과 부인 방지가 확실하게 보장됨 (고수준 보안)

## 일반적으로 비대칭 암호 방식(공개키 암호)의 기본적인 용도

## ■ 데이터 기밀성(Confidentiality) 확보

⇒ 공개키로 암호화, 개인키로 복호화

## ■ 데이터 무결성 및 인증(Integrity & Authentication) 확보 (전자 서명)

⇒ 개인키로 암호화, 공개키로 복호화(검증)

⇒ 공개키로 복호화하는 과정은 암호문 내용의 기밀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, 암호문이 특정 개인키 소유자(발신자)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공개적으로 확인(검증)하는 것이 목적임

## 전자서명의 원리 – 개인키를 사용해서 서명하는 것

### ■ 전자서명(DSA, Digital Signature Algorithm)의 핵심 원리 요약

- 메시지에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알고리즘
  - \* '이 메시지를 내가 보냈다는 증거'를 수학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임
- 전자서명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, 개인키의 비밀 유지와 공개키를 통한 검증임
- 공개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호화한다는 것은 메시지가 해당 공개키와 쌍을 이루는 개인키로 암호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
  - \* 송신자 A가 자신의 개인키로 암호화하고, 수신자 B가 A의 공개키로 복호화하여 검증하는 과정
- 키의 생성과 역관계
  - \* 공개키와 개인키는 수학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
    - 공개 키 암호 시스템은 두 개의 키  **$K_{pub}$ (공개키)와  $K_{priv}$ (개인키)**를 생성할 때, 이들이 암호화 E와 복호화 D 과정을 통해 서로 역할을 관계가 되도록 설계됨
      - 일반적인 사용 (기밀성):
$$D_{K_{priv}}(E_{K_{pub}}(M)) = M$$
(공개키로 암호화하고 개인키로 복호화하면 원문  $M$ 이 나옴)
      - 전자 서명 사용 (인증):
$$D_{K_{pub}}(E_{K_{priv}}(M)) = M$$
(개인키로 암호화하고 공개키로 복호화하면 원문  $M$ 이 나옴)
- \* 수학적 설계 덕분에, 한 쌍의 키 중 어떤 키를 먼저 암호화에 사용하더라도 그 쌍의 다른 키로 항상 복호화가 가능 --> 이 대칭적인 역관계가 바로 개인키 암호화/공개키 복호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임

### 1. 서명 생성 (개인키의 역할)

- 주체 : 서명을 하는 사람 (사용자)
- 원리
  - \* 서명할 문서(예: 이제 내용)의 내용을 "요약(해시)"함
  - \* 요약된 정보(해시 값)를 나의 비밀 도장인 개인키( $P_r$ )로 암호화함
  - \* 결과(전자서명 S) : 암호화된 요약 정보자(개인키( $P_r$ ) 자체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음)
- 예
  - \* 개인키 (x) : 서명을 만들 때 사용하는 비밀 숫자

- \* 공개키 (y) : 서명을 검증할 때 사용하는 공개 숫자
- \* 예시 : Alice는 개인키  $x=7$ 을 가지고 있고, 공개키  $y=23$ 을 공개
- \* 서명 생성 (Alice가 메시지를 보낼 때)
  - 개인키와 랜덤값으로 서명( $r, s$ )을 만듬
  - **메시지 해시** : 메시지 "Hello"를 SHA-1 같은 해시 함수로 처리  
→ 해시값  $H = 12345$
  - **랜덤 수 k 선택** : Alice는  $k=5$  같은 임의의 수를 선택
    - \* 1) 서명 계산
      - $r = (g^k \bmod p) \bmod q \rightarrow r = 8$
      - $s = (k^{-1} \times (H + x \times r)) \bmod q \rightarrow s = 12$
    - \* 2) 서명 결과

## 2. 서명 첨부 및 전송

- 주체 : 서명을 하는 사람
- 원리
  - \* 원래의 문서와 전자서명(S)을 함께 상대방(은행)에게 보냄(이때, 공개키( $P_u$ )가 담긴 인증서도 함께 보냄)
- 예
  - \* Alice는 메시지와 함께 ( $r=8, s=12$ )를 Bob에게 보냄

## 3. 서명 검증 (공개키의 역할)

- 주체 : 서명을 받는 사람 (은행)
- 원리 :
  - \* 은행은 내가 보낸 공개키( $P_u$ )를 사용하여 전자서명(S)을 복호화함 → 원래의 요약 값( $H_1$ )이 나옴
  - \* 은행은 받은 원래 문서를 똑같은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요약 → 새로운 요약 값( $H_2$ )이 나옴
  - \* 만약  $H_1$ 과  $H_2$ 가 일치하면
    - \* "이 서명은 이 공개키에 해당하는 개인키를 가진 사람만 만들 수 있다." (신원 보증)
    - \* "문서가 전송 중에 위변조되지 않았다." (무결성 보장)

- 예
  - \* 서명 검증 (Bob이 메시지를 받을 때)
    - 1) 메시지 해시 : Bob도 "Hello"를 해시 →  $H = 12345$
    - 2) 계산
      - \*  $w = s^{-1} \bmod q \rightarrow w = 3$
      - \*  $u1 = H \times w \bmod q \rightarrow u1 = 2$
      - \*  $u2 = r \times w \bmod q \rightarrow u2 = 4$
      - \*  $v = ((g^u1 \times y^u2) \bmod p) \bmod q \rightarrow v = 8$

- 3) 검증

- \* 공개키로 계산한 값이 r과 같으면, 서명이 진짜임을 확인
- \*  $v == r \rightarrow s == s \rightarrow \text{서명 유효!!!!}$

\* 공개키(Public Key)를 이용한 복호화는 주로 전자 서명(Digital Signature)의 검증 과정에서 사용